

곡성물 누적 매출 30억 달성...지역 상생 플랫폼 안착

개점 2년만 방문자 209만명 ↑ 성과
회원 4만5천명·650여개 품목 판매
수수료 면제 126개 업체 소득 견인
취약층 소비쿠폰 복지 선순환 구축

곡성군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곡성물'이 개점 2년8개월 만에 누적 매출 30억원을 넘어서며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이끄는 핵심 유통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31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 첫선을 보인 곡성물의 누적 매출액이 최근 30억8천만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9월 20억원 달성 이후 8개월 만에 10억원 이상의 추가 실적을 냈다. 현재 126개 지역 업체가 입점해 쌀과 멜론, 한우, 토란 가공식품 등 650여개 품목을 판매 중이며 누적 방문자 수 209만명과 정기 회원 4만5천명을 확보하며 탄탄한 유통망을 구축했다. 초기 농·특산물 중심에서 현재 생활 용품과 관광 상품까지 영역을 넓힌 곡성물의 가장 큰 무기는 판매 수수료 전면 면제 정책이다. 일반 상업용 채널과 달리 수수료를 없애 입점 업체가 희망하는 수익을 온전히 보장하고 여기

서 발생한 매출이 농가의 실질 소득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시기별 소비 흐름을 정밀 타격한 맞춤형 기획전도 매출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군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입점 업체 단독으로 진행한 '미가129 40% 할인전'과 '지리팍 기획전' 등은 업체 홍보와 판매량 급증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이달 열린 세계장미축제와 연계해서는 최대 50% 할인 특별전을 가동하고 매주 수요일 전 상품 무료배송과 쿠폰 지급을 결합한 수요특가를 병행해 신규 회원 유입을 크게 늘렸다. 바이럴 마케팅과 포털 검색, SNS 타깃 광고 등

온라인 홍보에 대해 유통채널 오프라인 판촉 활동을 더해 브랜드 인지도를 전국 단위로 끌어올렸다. 단순 특산물 판매망을 넘어 섬진강 기차마을 비대면 입장권 판매 시스템을 연동해 1억8천만원의 매출 실적과 관광객 현장 대기시간 단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지역 사회로 환원되는 복지 선순환 지표도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입점 업체 중 64곳이 매출 자발적인 나눔에 참여 중인 가운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연계해 관내 취약계층 아동 가정 115세대에 10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무상 지원했다.

이같은 성과를 인정 받아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곡성군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협업 과제 우수사례 우수상 등 각종 평가에서 수상을 휩쓸었다. 군은 오는 6월부터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멜론 집중 출하 시기에 맞춰 30% 특별전을 운영해 전국적인 판매 확대를 이어갈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물 누적 매출 30억원 달성은 지역 농업인과 소비자,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온라인 판로 확대와 혜택 강화를 위한 연계 사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장흥군, 범부처 협업 '해조류 밸류체인' 육성

중기부 주관 범부·행안부 등 5개 부처
무산김·매생이 고부가가치 성장 지원

장흥군이 지역 특화 자원인 청정 해조류 산업을 고도화하고 연관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범부처 협업 국비 공모 사업에 예비선정되며 산업 밸류체인 확장에 나선다. 31일 장흥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7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모에 지역 청정 해조류 육성 사업이 예비 선정 과제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산업을 키워 일자리 창출과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다부처 연계형 기업 지원 사업이다. 지자체가 산업 육성 전략을 기획하면 중기부의 기업지원과 함께 범부처·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관계 부처의 정책 수단을 연계해 집중 지원한다. 올해는 외국인력 공급(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촌협약, 어촌뉴딜 등 다양한 국책 사업을 결합해 산업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 무산김과 매생이 등 지역 대표 해조류 산업 고도화와 전후방 연관 기업 성장 지원을 핵심 과제로 내세워 부처별 공동평가를 통과했다. 단순 가공을 넘어 디자인과 브랜딩, 체험·관

광,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향후 전남테크노파크 및 전남바이오인허브와 협력해 사업 계획 고도화를 위한 기획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 관련 기업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현장 체감도가 높은 최종 실행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청정 해조류를 중심으로 한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함께 육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부서 간 협업과 중앙부처 연계사업을 적극 활용해 지방소멸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9월 개막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에 총 30개 국가와 3개 국제기구 유치를 마무리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섬박람회 33개국·기구 유치 흥행 '정조준'

그리스·WHO 등...관람객 맞이 총력
오는 9월 개막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총 30개 국가와 3개 국제기구 유치를 마무리하며 글로벌 해양 관광 축제 개최를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 31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기준 그리스·필리핀 등 30개 국가와 세계보건기구(WHO)·유니세프 등 3개 국제기

구의 참가가 최종 확정됐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섬발전 등 지구적 과제를 중심으로 해외 유치 활동을 전개해 박람회의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을 입증한 실적이다. 참여 국가를 대상으로 세부 프로그램 참가 신청 접수와 관리 카드 작성, 전용 SNS 직통 회선 구축을 완료해 국제교류점 운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 관람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사

기간 국제 크루즈 12항차 입항을 확정하고 여수 공항과 해외 3개국을 잇는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을 병행 추진한다. 세계 최초로 섬의 가치를 조명하는 이번 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오는 9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여수 돌산 진모지구 일원에서 열린다. 조형근 기획본부장은 "목표한 국가 및 국제기구 유치를 완료해 성공 개최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남은 기간 콘텐츠 완성도를 끌어올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행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보성군, 감염병 매개 해충 종합 방역 체계 가동

10월9일까지 주거지·하수구 등
보성군은 31일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모기 등 매개 해충 활동 시기에 맞춰 관내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종합 방역소득 체계 가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10월9일까지 밀집 주거지역과 하수구, 공원, 물웅덩이 등 위생 해충 서식지 1천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을 전개한다. 시야 확보를 방해하고 냄새로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기존 연막소독 방식을 폐기하고 약제를 미세 입자로 분사하는 친환경 연무 소독을 도입해 대기 오염을 줄이고 방역 효율성을 끌어올렸다. 본격적인 현장 투입에 앞서 지난 26일 소독요

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명을 대상으로 방역 장비 사용법과 약품 취급 요령, 안전 수칙 등을 숙지하는 직무 및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했다. <사진>



강학성 군보건소장은 "사전 교육과 장비 점검을 통해 현장 방역 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주민들께서도 고인 물웅덩이 제거 등 집 주변 모기 서식지 없애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 구례서 장길선 후보 유세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예산 등 약속
장 후보 "기본소득·돌봄 완수" 화답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장길선 구례군 수 후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집중 유세를 펼치며 '예산 5천억 시대' 개막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대표와 장 후보는 이날 오전 구례경찰서 로터리에서 선거 승리를 위한 막판 세 물이 나오셨다. <사진> 유세차에 오른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앞세워 전국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구례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선정'이 실현되도록 당대표로서 재정적·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근의회 의장을 지내며 지역 살림살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장 후보를 선택해 준다면 호남에 효도하는 심정으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확실한 구례 발전 청사진과 군민 통합 메시지로 화답했다. 핵심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30만원' 지급에 대해 장 후보는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

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며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이 더해지면 만큼 강한 의지로 반드시 실현 가능한 희망으로 만들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37년간의 교육공무원 경험을 살려 영유아 돌봄과 교육을 전직으로 책임지는 '행복 교육 도시' 조성을 제시했다. 끝으로 장 후보는 "전 국민 기본소득 시대를 열고 구례 예산 5천억 시대를 달성해 인구 감소로 구례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군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자부심으로 바꾸겠다"며 "정치의 핵심은 구례군민이 하나 되는 것인 만큼, 진심을 다해 일할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거듭 지지를 당부했다. /구례=김세중 기자

담양군, 여름철 물놀이 사고 '제로화' 총력

이달부터 3개월간 대책 기간 운영

담양군이 여름철 피서객들의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인명사고 원천 차단에 나선다. 31일 담양군에 따르면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피서 인파가 집중되는 7월15일부터 8월17일까지를 상수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주요 피서지인 한재골 물놀이 관리지역에 전담 안전관리요원 2명을 배치해 현장 밀착 감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관내 농어촌민박과 관광숙박시설,

수상레저사업장 등 분야별 물놀이 시설 83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위험 지역 예방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달 28일 전남도 주재 수상 안전 관계기관 대책 회의에 참석해 기관별 비상 근무 체계와 협조 방안을 면밀히 조율하며 촘촘한 상시 안전망을 구축했다. 고근석 산업안전국장장은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통해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방문객들 역시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주영 금지 등 기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화순군, 시설채소 농가 폭염 대비 기술 지원

오는 7월까지 작물 생육 상태 점검

화순군은 평년보다 이른 폭염에 대비해 주요 시설채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며 선제적인 농작물 피해 예방에 나섰다. 31일 화순군에 따르면 오는 7월31일까지 농촌진흥청과 합동으로 '시설채소 생육관리 현장 기술지원단'을 편성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사진> 올해는 5월부터 첫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로 시설하우스 내부 온도가 외부보다 5-10도 이상 치솟아 낙과 및 생육 장애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기술지원단은 토마토와 파프리카 등 시설채소 재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작물 생육 상태를 정밀 점검하고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지도를 실시한다. /화순=이병철 기자



각 농가별 재배 환경에 맞춘 밀착형 컨설팅을 병행해 기상 이변에 따른 생육 부진과 고온 피해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최은순 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유가 상승과 이상기후 여파로 시설재배 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며 "밀착형 기술 지도를 통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가 소득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